

대림 제2주일

기도서 214면(다해)

제1독서 : 바룩 5, 1-9

제2독서 : 필립 1, 4-6, 8-11

복 음 : 루가 3, 1-6

숲 정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낮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가 3, 4-6).

강론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동/장인동 보좌신부

소리

“이기적 자기 중심에서 이젠 떠날 때

입시철이 되었다. 삼당사락(三黨四落)의 입시! 어느 과에 지원을 해야되나! 최후의 5분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에 신발에서 불이 날 정도로 뛰어들며 상황을 살피고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창구에 접수시키는 학생들의 모습이 TV를 통해 보여진다.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도 한다. 꼭 수험생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기다림을 체험하였고,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전례력의 시작을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로 시작한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매주 일 하던 대영광송을 잠시 중지하고 늘푸른 나무로 장식을 해서 대림의 초를 매주간 하나씩 더 밝히면서, 바로 우리는 아기예수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기다림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여기에 맞갖은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는 오늘 복음의 세례자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에서 요구하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Shub)라고 하는데 원뜻은 '길을 바꾸다.' '되돌아 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인 자기 반성이 아니다. 오히려 어원적으로 보아 얼굴을 다시 한번 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까지 하느님을 외면했던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느님을 향하여 사랑에 넘친 삶을 살고자 하는 인격의 방향 전환이다.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느님께로 향하려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포로들의 귀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온갖 형태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심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슈브(Shub)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겠다. 복음은 우리에게 돌아서서 하느님을 마주보라고 끊임없이 요구한다. 이 끊임없는 요구는 죄가 뿌리깊은 오점이 아니라 방향전환을 함으로써 하느님이 주신 능력으로 죄인이 자기의 운명의 방향을 고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이다.

마라나타! (주여 이서 요소서)

수녀님! 88년 1년동안 우리들이 끌고다니던 그림자의 키만 큼 자라 이제 한해의 끝에 피어 있습니다. 흘러버린 한해의 시간들은 어떤 후회로도 어떤 기도로도 지나간 것들의 흔적을 환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거워서 버리고 싶었고 자유로와 지기 위해 끊어버리고 싶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에 주저 앉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친구를 남처럼 차가운 눈으로 쳐다본 적도 있습니다.

인생과 불화 때문에 정든 동료들과 헤어지기도 했고 거리의 벽보판을 꼭 메운 선거포스터에 넋을 잃기도 했으며 수 천억의 정부예산으로 쓰아대는 사과탄 지랄탄에 맥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추악한 5공비리 청문회를 보며 「오리발 내밀기」 세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뻔뻔스러움에 할 말을 잊기도 했습니다.

수녀님! 그런 한 해가 기울고 길가의 은행나무들도 겨울 채비를 마쳤습니다.

술주정꾼인 아버지를, 잔소리뿐인 어머니를, 게으르고 탈선한 딸을, 실패해 버린 아들을, 뻔뻔스런 낯짝의 배신자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저 얼굴없는 정치가를 우리는 용서해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화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묵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지향하며 자신에 대한 자기부정의 길을 향하여 떠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소생되었고 살아있는 성녀 테레사수녀는 인간과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참사람이 갈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기적 자기 중심에서 떠날 때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그것에 흡수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나?

“천국이 어디 있나?”라고 빈정대는 오만한 친구들을 만난다. 맞는 말이다. 실제로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 .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으며 살아 왔다. 죽었다가 깨어 났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몇 다리 걸치며, 눈덩이처럼 불풀어진 술한 얘기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황된 천국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다. 이 잘못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로 잘 못알아 듣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결코 ‘어떤 장소’가 아니다. 꽃 피고 새우는, 그리고 언제나 놀고 먹는 게으름뱅이들의 집합소를 천국이라 하진 않는다.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도, 존재 할 수도 없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루가17,21).

그리고 모든 율법중에 최고 가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현명한 율법학자 한 사람에게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이란 사랑이 머무는 곳에서 생겨나는 ‘충만한 상태’임을 귀결짓고 있다. 즉 천국이란 죽고 난 후에야 갈 수 있는 먼 미래의 어떤 신기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hic et nunc)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로부터 성장되는 ‘이미 와 있으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결국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자신을 떠나 하느님과 타인에게 모든 것을 내 던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으며, 우리는 사랑을 먹고 성장한다. 이 성장과 변화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다. 결국 천국도 지옥도 모두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전개되고 있다. 사랑은 천국을 키우고 있고 믿음은 지옥을 키우고 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은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성서와 함께

30. 성서시대의 역사(K) : 희랍시대

바빌론 귀양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황폐해진 팔레스타인의 복구를 위해 인간 힘을 기울이는 반면, 희랍인들은 문화의 황금시기를 맞는다. 기원 전 525년 이후 이 세기 동안 기라성 같은 철학자, 극작가, 자연과학자, 조각가, 웅변가들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을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들의 이름이 우리 귀에 익숙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포클레스, 유피피데스, 미론, 히포크라테스, 데모스테네스들이 모두 이 시대에 속한다. 세기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은 문무를 모두 겸비한 명장으로서 부와 영광을 위해 세계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찬란한 희랍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싹튼다. 희랍문화와 히브리적 믿음은 쉽사리 융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336년에 정복사업에 착수하여 323년 열병으로 사망하기까지 마케도니아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은 333년에 그의 지배에 들어갔다.

알렉산더는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왕국의 분할을 놓고 그의 후계들 사이에 분규가 잇달아 일어났다. 301년 왕국은 두 지도자 사이에 둘로 크게 갈라지는데, 나브는 안티오키아를 수도로 정하고 시리아와 바빌론을 다스리던 셀레우쿠스이고 다른 하나는 알렉산더 자신이 세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집

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마이오였다. 이후 세기를 두고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는 정치와 문화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처음에 프톨레마이오의 통치 하에서 한명의 대사제를 중심으로 율법과 그의 여러 가지 종교적 준칙들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조그만 농업과 상업 공동체였다.

이 공동체의 내부는 두 그룹으로 크게 분열되어 있었다. 희랍 문화를 숭배하고 희랍 세계와의 교역을 시도하며 희랍식 오락을 즐겼던 친 희랍파와 희랍적인 모든 것과 단절하고 희랍 통치자들의 타협을 철저히 거부했던 수구파 사이의 극심한 분열이었다. 그러나 속국 민족들에게 비교적 부드러운 정책을 펴나갔던 프톨레마이오 치하에선 이 분열이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199년 파네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알렉산드리아 왕국에서 안티오키아 왕국으로 넘어갔다. 안티오크스 3세는 현명치 못하게 로마인들을 공략했다가 패배의 대가로 큰 세금을 물어야 했는데 이를 속국 민족들에게 부담시켰다. 더구나 안티오크스 4세는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곧 “신의 현존”이라고 불리 수구파 유대인들을 자극시켰고 167년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여 유대인들을 격분시켰다. 수구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항쟁 뿐이었다. 이 항쟁에 대한 기록은 마카베오 1서와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 고대사” 12권에 잘 나와 있다.

한복
약혼·무용·파티·결혼
고려주단

전 광원 (마르코)
김삼례 (소피아)
전주시 고사동(신혼예식장 골목)
☎ 6-1902

컴퓨터 시설로 자연 그대로
색상재현
미영칼라현상소

전 병전 (토마스모어)
이영의 (투리모니아)
전주시 중앙동3가30(삼화약국 앞)
☎ 84-9286, 3651

89학년도
성심유치원
원아모집요강

88년 12월 1일부터 선착순마감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
공휴일 제외
문의처 : 84-8347, 82-8234

성지순례·신혼여행 전문
고려여행사

대표 이종길 (요한)
전동성당 옆 윤가족병원 2층
☎ 전주 84-9797, 0239
FAX : 85-9321
정주 33-3373, 태인 34-4079

교 구 소 식

1. **혼인강좌** : 12월18일 오전9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2. **선택(choice) 주말 전주2차 실시** : 89년1월27일(금)-29일(일) 장소-수류 교육관
회비20,000원 문의·접수-교육국(85-0041) 접수순 42명
3. **초등부 교리교재 신청(교구 전체 통일 교재 선정 사용)** : 신청-12월16일까지 교육
국으로 학년별 구분하여 가격-어린이용1,000원(유치부-6학년) 교사용2,000원
4. **대학생 연합회 정기총회** : 회장-정용훈(바오로, 원광대) 부회장-손순덕(마리아,
전북대)
5. **초등부 교리교사 연합회 정기총회** : 회장-이원호(보스코, 숲정이) 부회장-장재인
(요셉·인후) 염상희(마리아·복자)
6. **사회복지 후원회(사랑의 다리) 일일피정** : 12월12일(월) 오전10시-오후5시까지
장소-천호 피정의 집 참가대상-사회복지 후원회 회원(사랑의 다리), 관심있는
일반교우 참가비-1인당3,000원(점심제공) 문의는-84-5290 집결-12일 오전9
시까지, 가톨릭센터에서 버스출발(피정의 집에는 10시 도착)
7. **군중후원회 월레미사** : 12월5일 오후6시(월)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8. **2젠(고등학생-성인) 3젠(국민학생-중학생) 모임** : 4일(오늘) 오후2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9. **베소라(초급반)개강** : (수요일 반) 7일 오전10시-12시 (금요일 반) 9일 오후7시30
분-8시30분 회비-매월3,000원(학생-1,000원) 강사-김보나수녀 장소-가톨릭
센터 3층

※ 전화번호 변경 : 월명동천주교회 사제관42-5325 사무실42-2041

시복시성 및 성지개발을 위한 가정봉헌서를 아직 받지 못한 가정은 구역장님이나
본당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복시성·성지개발 위원회-

잠깐!

시험과 미사 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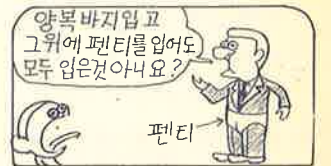
점쟁이들의 호시절이 돌아왔다. 시험 때가 된 것이다.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면 그러라 싶지만
신심 약한 교우들까지도 영거주춤 발길을 돌리는 것은 주지할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우리를 씩씩하게 하는 것은, 마치 복채 바치듯 하는 미사 예물이다. 미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외아들의 삶과 피까지도 우리의 음식으로 내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이다. 이 거룩한 예식을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해지는 푸닥거리로만 생각 한다면
안타깝다 못해 슬프게 까지 한다. 물론 극 소수 신자들의 얘기 이겠지만 미사예물을 바쳤는데도
시험에 떨어지자 그 예물을 되 찾아갔다는 우스개 소리에 대한 메아리인 것이다. 어쨌든 수
험생을 둔 부모들이 풀이든 가슴이 더욱 풀이든 때이다. 그러나 물에 빠진사람이 지푸라기 잡
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하느님이기 보다는 자식이 아버지의 손길을 잡듯 굳건한 마음으로 매달려
야겠다.

운명,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몽땅 맡겨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나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건일지라도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자.

"아버지 이제 곧 시험을 치뤄야 하는 주님의 아들이 얼마나 잘 준비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할지 떨어질지 불안하지만 합니다. 하오나 그저 당신손에 맡겨 드립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의 구원에 가장 유익한 길로 그를 끌어 주소서. 하오나 주여! 파도에 휩쓸려
요동치는 뱃머리 처럼 뒤 흔들리는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요십이 (800) 김병오



해태우유특약점장 및 판매사원 모집

1. 모집지역 : 특약점장 - 전주·이리·임실
판매사원 - 전북지역 ○○명
2. 문의처 : 전주시 금암동 768-7
T. 76-9630, 75-1086

해태유업(주) 전주지점

전북의료조합 지정 이신경외과의원

부설 : 물리치료실
전문의 이 종두 (현리교)
김 성자 (젤마나)
중앙국교안, 팔달로 건너편
☎ 83-3113, 3112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스렌즈
원장 : 전문의 마 기 환
한 남희 (비리시디)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85-2203

한방보약·예방의약
용(元葺) 九蒸葺 인삼



영세당약국

약사 정우진 (이시약) 황신숙 (리브기)

전주시 완산국교 사거리 ☎ 6-6422, 6-5326 ※ 일요일은 휴무

"발표력을 기릅니다. 응변을 배웁시다"

'89.유치부 원아모집. 방학특강반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구.서중로터라) ☎ 3-3284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전주역 옆) ☎ 4-3948
효자웅변종합학원 (효지쌍용APT 옆) ☎ 83-8331~2
원장 유병철 (베드로) · 원감 박경애 (안젤라)

☐북전주시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심민호
사무실 77-1711 보좌신부 김진홍
수·유 77-1712 사목회장 황의옥

- * 반미사 : 7일(수) 오후8시 10분
 - * 사목회총회 : 9일(금) 오후8시 사목회위원, 단체장 꼭 참석하세요.
 - 1. 89학년도 성모유치원 원아모집 : 만5·6세 12월 1일부터 선착순마감(77-1712)
 - 2. 병자판공성사 : 6일(화) 오후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 3. 고교입시생을 위한 청원미사 : 6일, 저녁7시 대학입시생을 위한 청원미사 : 13일 저녁7시
 - 4. 모임 : 다미안회-오늘 대둔산 자모회-오늘 어린이 미사후 반장회합-9일(금) 어머니미사후 꼬미씨운동-다음주일(11일) 오후 2시
 - 5. 가을판공 성사면담(철교지 지침) 면담일자 : 14일(수)-17일(토) 면담시간 : 오전10시~12시, 3시~5시, 8시~10시
 - 6. 성체강복 : 9일(금) 저녁미사후
 - 7. 성탄탄 예비자 집중교리 : 19일~21일 오후8시
- 지난주봉헌금 : 1,178,350원 □교무금 : 1,652,0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1.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후
 - 2. 차주는 친교주간 : 반장님회의-차주공식미사후
 - 3. 차주는 자신의 날 : 특별헌금 있음(불우이웃돕기)
 - 4. 가을 판공 : 초·중·고(17일) 19일(1만-45만) 20일(46만-60만) 21일(61만-66만 *성사시간 오후2시-5시 오후7시-10시)
 - 5. 가정방문 : 수(42만) 목(43만) 금(44만)
 - 6. 교회운영비 : 완납함이다.
 - 7. 특별교리(수녀님반) : 일시-10일~17일 교리시간-저녁7시30분
 - 8. 금주전례 : 해설-문송옥 봉헌-김중건부부 복사-박희정 양정용 기도-23만, 24만, 25만
 - 9. 차주전례 : 해설-나인구 봉헌-유문종부부 복사-장수택 임병규 기도-26만, 27만, 28만
 - 10. 미사안내 : 사도의 모후Pr 차주-그리스도의 모친Pr
- 지난주봉헌금 : 새벽161,950원(178명) 공식369,130원(392명) 저녁121,890원 합계694,250원 □교무금 : 781,5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 1. 요셉회 : 공식미사후(2층 회의실)
 - 2. 까리따스 자모회 : 6일(화) 오후2시
 - 3. 성심부녀회 : 7일(수) 오전10시
 - 4. 병자봉성체 : 9일(금) 사무실에 미리 신청하세요.
 - 5. 고교입시생을 위한 축원미사 : 7일 저녁7시
 - 6. 성탄판공성사 : 15일~17일, 11일부터 성사표 배부
 - 7. 성탄잔야 행사 : 1부-가족별 대항 2부-단체 대항 18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우리의 행사입니다.
 - 8. 금주가정방문 : 팔복 1, 2번
 - 9. 수고하시겠습니다. 새 사무장님 : 김경수(스테파노)
 - 10. 금주전례 : 해설-민운식 복사·독서-교육분과 기도-덕진7만
 - 차주전례 : 해설-이석규 복사·독서-사목회 기도-덕진7만
 - 11. 금주본당청소 : 평화의 모후Pr-10일 오후1시30분
- 지난주봉헌금 : 742,555원 □교무금 : 1,923,000원
□신설본당 2차헌금 : 329,41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협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 * 다음주일은 자신의 날입니다 : 불우한 이웃을 도우시다(2차헌금 있음)
 - 1.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 사무실에 신청
 - 2. 판공철교지 사무실로 가져 오세요.
 - 3. 가정방문 : 6일-원반월, 7일-화전, 8일-성덕, 9일-기타
 - 4. 구역미사·모임 : 미사(6일)-원동 나눔잔치(7일)-동산7구역 모임(9일)-동산7구역
 - 5. 모임 : 오늘 공식미사후-애영회, 꾸리아 6일-빈첸시오회, 차주공식미사후-안나회, 글라라회 12일-울드레야
 - 6. 금주청소 : 셋별Pr. 차주-바다의 별Pr.
 - 7. 금주전례 : 해설-한기철 독서①육문용 ②신문자
 - 차주전례 : 해설-손택규 독서①강용준 ②김경숙
- 지난주봉헌금 : 268,710원 □교무금 : 382,000원
□수요헌금 : 31,120원 □2차헌금 : 254,520원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사목회장 박병열

- * 벽돌 헌금 함 : 우리들의 정성 어린 벽돌 한장이 아름다운 성전유익을 짓입니다 * 교무금 납부에 성의를 다 합니다.
 - * 짓갈류 판매 : 성전 신축을 위한 각종 짓갈류를 판매 합니다.
 - 1. 금주모임 : 사목회-공식미사후 성모회-공식미사후 10일(토)-부녀회 구역장회 제대회 차주모임 : 성교회-공식미사후
 - 2. 세대주 면담 : 12월 5일(월)-12월9일(금)까지 시간-오후3시~6시까지 1구-5일, 2구-6일, 3구-7일, 4구-8일, 5구및 어은골-9일(성사표 배부) 세대주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람.
 - 3. 성령세미나 및 판공성사 : 12월12일(월)-12월16일(금)까지 성령 세미나-저녁7시30분부터 회비1,000원 참가 대상-전신자 및 예비자
 - 4. 판공성사 : 세미나중 오후3시-6시까지 1구-12일 2구-13일 3구-14일 4구-15일 5구및어은골-16일(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람) 5. 금주 본당 청소 : 매과의 모후 차주-증거자의 모후
 - 6. 금주미사 : 해설-오정중 독서①김형식 ②이정림 차주 : 해설-오정중 독서①이영수 ②김형욱
- 지난주봉헌금 : 226,860원 □교무금 : 124,00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무실 사목회장 소병울
수녀원 4-1142

- 1. 신축본당돕기 2차헌금 있음.
 - 2. 사목회 : 공식미사후(강당), 안나회-11일
 - 3. 구역장·빈자 모임 : 7일 오후2시, 까리따스회-6일 오후2시
 - 4. 예비자 밭아들이는 예식 : 11일 공식미사중
 - 5. 가을 판공성사 일정 : 13(화) 14(수)
 - 6. 본당미방공사 : 신입총액 3,890,000원 김영구10만 이상철3만 유종근10만 정현숙20만 심상기12만 김은식10만 정병순10만 김갑환5만 박귀식1만 본당신부님20만 김학용1만
 - 7. 지속적인 섬세 조배 :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8. 금주본당청소 : 송천9구역, 10일 오전11시
 - 9. 금주전례 : 해설-김은식 독서·기도-여성분과 차주전례 : 해설-서복자 독서·기도-구역분과
- 지난주봉헌금 : 356,960원 □교무금 : 830,00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 * 정승현 신부님께서 수고많으십니다.
 - 1. 축! 결혼 : 신앙-김종환(아릭스) 신부-김경자(오후1시)
 - 2. 오늘모임 : 성모회, 푸른솔 *금주와 차주에 2차헌금있음.
 - 3. 사목회 : 6일 오후7시30분
 - 4. 중3(수험생)을 위한 미사 : 6일 오후7시
 - 5. 금주가정방문 : 10구(6일), 9구(8일), 6구(10일)
 - 6. 아기에수 구역발문시작 : 6일 오후8시 *술머리 참조
 - 7. 지난주 수녀원 건립기금 신입액 : 동양아파트 5,400,000원, 진북2동3구 3,720,000원 진북2동4구 880,000원
 - 8. 교무금 납부가 부진합니다. 성의를 다하십시오.
 - 9. 금주본당청소 : 화-하늘의 문 토-증거자의 모후
 - 10. 미사안내 : 인사하신 모후 11. 미사해설 : 김경주
 - 12. 금주전례 : 독서·기도-김경수 서영숙 봉헌·기도-서창원 한정희 차주전례 : 독서·기도-김진섭 김영희 봉헌·기도-김영일, 장형순
- 지난주봉헌금 : 375,080원 □교무금 : 750,0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정수일
수녀원 3-9236

- * 사목회장 : 정수일(모방베드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병문(대견안드레아)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부회장 : 안남근(베네딕도) 나동진(프란치스코) 수고하시겠습니다.
 - 1. 울드레야 모임 : 6일(화) 저녁미사후 꾸르실리스따님은 꼭 참석 바람
 - 2. 판공성사 성경읽기 : 에페소서 1장~6장까지
 - 3. 성사는 성사표를 가지고 성사받으세요. 평일 사무실에서 성사표 드립니다.
 - 4. 교무금 및 신축금은 완납하시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 5. 본당 온풍기 인원을 구합니다.
 - 6. 장의자 신청에.....내차라는 분이 마련합니다.
 - 7. 켈마회 총회 : 8일(목) 어머니 미사후
 - 8. 12월 성당 청소 : 순결하신 모후 매주 월요일 오전에
 - 9. 건전 사진 갖아가세요. 사무실에서
- 지난주봉헌금 : 631,790원 □교무금 : 305,830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